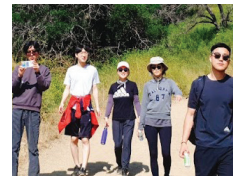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 . 안 . 예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06
June 2023
Vol.11 No.06

통 권 106호

- 창립10주년 특집
- 드림목장 봄나들이
- 성가대 소식
- 교육부 / 교우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최혁 담임목사 KCBMC 대회 설교

지난 6월 29일 LA에서 열린 제26회 북미주 한인기독교실업인대회(KCBMC) 개회예배에서 최혁 담임목사는 "유일한 관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무소부재하신 편재의 하나님을 각자 삶에 출현하는 임재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함을 강조해 참석한 3백여명 BMC 회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마음’

■ 창립10주년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013년 5월 26일 다우니채플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고, 곧 이어 6월 16일에 벨리채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안예교회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모진 풍랑도 있었고, 오해와 질타, 공격, 아픔과 상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좌절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가기 위해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안예교회에 부르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최혁 담임목사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셨고, 주안예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어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이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교회가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주안예교회 창립10주년

■ 드림목장 봄나들이

지난 6월 5일 목요일은 드림목장의 어르신들이 봄 나들이를 나선 날이었다. 팬데믹 이후 처음 떠나는 나들이인 만큼 들뜬 마음으로 기다려 왔던 날이라고 한다.

50인승 관광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산타 바바라를 거쳐 아름다운 숲속 길을 따라 올라가니 눈이 부시게 푸른 카추마 레이크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는 이미 김현권 목사님과 다수의 봉사팀이 도착해서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북어국과 커피, 도시락, 과일 등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후 이번에는 네델란드 풍의 예쁘고 아담한 솔뱅으로 이동을 했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빵과 커피, 아이스



크림 등을 서로 사귀가며 답소를 나누다가, 풍차 앞에서 앞다투어 사진을 찍는 모습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바닷길을 따라서 돌아오면서 행복한 하루를 마련해주심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셨다 “주안에 교회가 최고여!” | 임용자 기자 |

■ 1부 마하나임 성가대 첫 찬양

지난 6월 11일(주일) 1부 예배시간에 그 동안 열망하고 기다리던 1부예배 마하나임 성가대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 7시에 모이는 관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지 걱정했던 것은 단순한 열려일 뿐, 30여분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몇 주 동안 준비를 하고 드디어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연습하는 중에도 그 열기는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휘를 전공한 이재형 집사의 지휘와 구자형 권사의 반주로 30여명의 성가대원들은 “나의 생명 드리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1부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했습니다. 연령도 다양하여 10



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첫 찬양에서는, 최혁 담임목사님이 참여하고 여러 부사역자들도 찬양대원으로 함께하여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1부찬양대는 매주 아침 7시 성가대에서 모여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환영표 총무나 목회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영 기자 |

■ 밸리우스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11일 주일 오후 7시 주안에교회 본당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클래식음악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네 번째 밸리우스오케스트라 (단장: 구자형 권사)의 연주회가 있었다.

분주하고 복잡한 현대인의 삶을 잠시 뒤로 한채 음악 속으로 빠져드는 여유를 한껏 느껴보는 멋진 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연주된 밀양 아리랑(이지수 편곡)은 2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설명해 주신 헨리신 지휘자의 배려 덕분에 더욱 멋진 연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날 연주를 끝으로 대학으로 떠나는



3명의 학생에게는 발렌티어상을 수여하였고 이미 대학생이 된 선배들은 방학을 맞아 후배들과 함께 연주에 참여해서 더욱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연주회였기에 연주를 감상하는 모든 분들은 청량음료를 마신듯한 후련함을 맛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 임용자 기자 |

■ 한 사역국 10년 봉사자들

“꾸준한 섬김, 하나님 은혜로 가능했어요”

2013년,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교회를 꿈꾸며 창립 예배를 드렸던 벨리 주안예교회가 어언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안예교회 문서국에서는, 수많은 세상적인 에피소드를 뒤로한채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한결같이 주안예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같은 사역국을 섬겨오신 보석같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그 분들의 신앙과 헌신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행 : 오희경 문서국장)



10년간 같은 사역국에서 섬겨온 봉사자들. 김옥희 권사(왼쪽부터), 김윤영 집사, 김헬렌 권사, 오희경 권사, 김규실 권사, 황영옥 권사, 나형철 장로

■ 참석자: 김헬렌 권사 (예배 반주), 나형철 장로 (교육국, 성가대), 황영옥 권사 (성가대), 김옥희 권사 (예배국), 김규실 권사 (평사원), 임용자 권사 (브니엘), 김윤영 집사 (문서국 편집디자인)

질문 1) 오랜시간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받으신 감동이나 은혜가 있으신가요?

김헬렌: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능을 주셔서 긴 시간동안 꾸준히 섬길 수 있음이 항상 감사하고 은혜 스러웠습니다.

나형철: 교육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기에 어려서부터 교육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학생이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 중요한 직분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황영옥: 평생 성가대를 해 왔지만 주안예교회에서의 10년간의 성가대원으로 섬김이 유난히 감동스럽게 남는 건 악보를 외워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던 점이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음원을 스마트폰으로 나눌 수 있음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김옥희: 예배안내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의 표정을 보고 그 분의 상태를 짐작케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심과 위로를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임용자: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의 전담이었던 성전봉사가 지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동을 하며 은혜롭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영: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나 개인에게 행하신 일들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며 간접적인 체험을 해 볼 수 있고 남길 수 있음이 감동스럽고 은혜로웠습니다.

김규실: 평사원 인도자로 오랜시간 섬기며 받은 특별

한 은혜는 무엇보다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며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어감 또한 은혜로웠습니다. 매 단원마다 기도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제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 2)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스스로에게 남는 여쭈움이 있으셨나요?

김헬렌: 밤새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어도 새벽이오면 일어나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눈, 두 손, 두 발, 두 귀를 더욱 잘 보살펴서 작은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을 아쉬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형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함께 교사로 섬겼던 청년들이 제 목장에 소속된 목원들에게 같은 목장이 아님에도 식사대접을 할 때 보람을 느꼈고, 아쉬움이라면, 고등부 학생이 부모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는 걸 보면서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던 게 아쉽기만합니다.

황영옥: 최근에 Alto를 거의 일년간 섬겼는데 감기를 심하게 앓고난 후 갑자기 음의 고저가 안맞아서 다시 Soprano 로 옮겨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김옥희: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로 오시는 분에게 예배안내자로서 좀 더 따뜻하게 대해 드리지 못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게, 나중에 그 분이 하늘나라로 가신뒤에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임용자: 건강이 약해짐을 느꼈을 때 이왕 아플거면 주초에 아프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한적이 있었는데 제 몸의 컨디션을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주말이 오면 봉사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곤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7면에 계속>

■ 주안예교회 10년 '나의 감사, 잊을 수 없는 추억'

감당키 힘들었던 핍박과 고난 속 '놀라운 은혜'

홍영표 안수집사 바리새인처럼 살던 자가 처음 (?)듣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접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주안예교회" 성도가 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지 10년, 그동안 저의 삶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되고 느끼게되고 만나게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만난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즉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금자 집사 먼저 오랫동안 예배할 곳을 찾던 중에 주안예교회에 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먹여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구원 받은 자로써 사랑의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에서 나를 돌아 보게 하여 주시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 예배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문수경 권사 주안예교회 하면 먼저 하늘 나라 가신 장로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죄송함이랄까요. 처음 주안예교회의 터를 만드신 분이 그 장로님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안예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얼마를 주셨는지 모르나 다시는 후회하지 않게 주안예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 더 열심히 돕고 섬기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문성훈 안수집사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신 점입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큰 감사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열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이웃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하루 하루 준비하는 열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자형 권사 거의 문을 닫을 뻔했던 예전 세계비전교회가 주안예교회로 합하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목격하였고, 특히 2019년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연약했던 나의 신앙심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준 주안예교회. 더욱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신 우리 주안예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방방곡곡으로 선교를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자랑스럽고 정말로 뿌듯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역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내 생애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세의 피택권사 Downey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부터 주안예교회와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 당시 ICY와 IC Kidz에 있던 두 딸들도 훌쩍 자라 큰 아인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는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돌아해보면 지난 10년이란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지만 주안예교회에서 최목사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 큰 성장이 있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윤상숙 성도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과 세례식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라, 드러내지 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주변 상황에 마음쓰지 말라'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앵무새처럼 떠들지 않고 저의 삶으로 승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한선 권사 개인적으로 주안예교회에 오게되어 신앙생활을 하게된 여정을 돌아해보면 방황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책임지시어 당신의 딸임을 입증시켜 주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이며 감사함 그 자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세례로부터 시작된 긴 시간의 크리스찬 이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게 부끄러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안예교회에 인도되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참그리스도인이 되고픈 욕심이 생기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음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장정보 권사 그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안의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어느새 창립1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안의 성도로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깨우쳐주고 금지를 심어주어 훗날 우리 자녀들이 커뮤니티사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 주안예교회 10년 '나의 감사, 잊을 수 없는 추억'

말씀 위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김형선 피택권사 한국을 떠나 미국 정착을 계획하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말씀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저희 가정은 주안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몇해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며 쉽게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저는 궁금증을 가져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말씀에 의지하며 묵묵히 성김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성숙된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해 주시는 깊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교회를 지탱해 주는 진정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광수 안수집사 제가 주안예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저는 하나님을 나의 생활의 안위와 편리함의 도구로 이용했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같은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삼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병순 권사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언론사와 여러달 재판과정을 통해 얻은 승소결과였어요. 주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갖은 편파와 핍박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건재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밖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전정자 권사 주안예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목사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짓기와 허위방송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을 통하여 밝혀주신 그날,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목사님과 주안예교회를 사용하시어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 방황하던 영혼들



이 돌아와 회복되게 하시며 선교지를 확장케 하시어 기도로 물질로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서미숙 권사 주안예교회와 함께한 9돌여의 개인적 세월 또한 자축하며 망망대해에 몸을 맡긴 테바의 동력으로, 거대한 여객선의 평형수로, 암흑속의 등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착륙할수 있는 활주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신 주안예교회에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성화과정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설렘으로 기대하며 지상 천국의 건설에 함께 동참하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양태섭 피택장로 매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안예교회는 예배를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고, 주중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최선을 다해 설교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준비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박익준 집사 저는 2014년 가을, 영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친구가 다니던 주안예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우연히 참석하게 되며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최혁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준비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회복을 받은 저는, 그 당시 돌던 교회에 대한 소문에 대해선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주안예교회에서 너무 확실하게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서 지금 이 예배에 혹시 방해받거나 관한 시험에 들게 될까봐 소문을 검색해보거나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안예교회에 출석하게 되며 예배와 훈련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부어주신 많은 감사한 복들을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추억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수정 성도 10년전에 다우니 채플에서 시작해서 많은 채플들을 옮겨다니며 이사도 많이 했었고 채플이 바뀔 때마다 성도님들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해야할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채플이 거리는 가깝지는 않지만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안예교회가 많은 영성 훈련하며 주가 주인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주안예교회 10년 '나의 감사, 잊을 수 없는 추억'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윤혜수 권사 첫 예배를 감동으로 드린것이 잊 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억 속에 스쳐지나 갑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으시며 너무나 열정적이신 목사님과 주안의 식구들은 어떨때는 감탄이 절로 나올만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에도 큰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찌면 다른 교회에 비해 많은 변화와 시험과 환란을 거치게 됐던 주안예교회는 그로 인해 더욱 더 단단해졌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를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하나 권사 나의 오랜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뻐했던 일은 7년 전 빅베어 힐링캠프에 7기 생으로 참가하여 은혜를 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힐링캠프로 나를 인도하신 최혁 담임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3박 4일간 주옥같은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나 자신을 그 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원 성도 주안예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좋은 공동체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0년동안 주안예교회에 함께 하면서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하셔서 개인적인 힘든 시기에도, 또 기쁜 시기에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실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안예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엄청 축복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경일 피택안수집사 주안예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 저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최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였고,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는 섭리의 신앙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안예교회를 통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지선 피택권사 플러튼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 베이스 기타가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모습은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은 큰 의자에 앉아서서 중우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시는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귀한데, 드림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예배를 위해서는 솔선수범으로 언제나 열심과 열정으로 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구윤예 성도 대학생 때 교회를 찾던 와중에 친구를 따라 주안예교회로 주중예배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낮도 많이 가리고 소심하던 저에게 있어 낮선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크게 외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첫 예배에 참석을 하자마자 저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 감동과 충격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항상 예배만 드리며 어느 한 공동체에 단 한번도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안에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 브니엘 사역 9년 / 임용자 권사

"만남과 소통의 공간... 커피 전문가가 다 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브니엘 사역국은 주안예교회 역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교회의 수많은 사역국 가운데에서 시작부터 오늘까지 같은 사역국을 계속 섬겨오고 국장이 바뀌지 않은 사역국이라 하여 글 한쪽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숨어 버리고 싶었다. 9년전 어느 주일날 이층에서 의료국을 섬기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브니엘에가서 잠깐만 도와주고 오라는 부탁에 멋모르고 들어선 일이 오늘까지 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커피 내리는 것도, 계산기 다룰 줄도 아무 것도 알지 못한 나는 좌우충돌 하면서 평일날 한 달이나 홀로 연습하며 배워나갔다. 하우스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샵에서나 살 수 있는 라떼, 마끼아또 까지 모두 섭렵하고 나니 자신이 생겨 성도님들께 눈을 돌릴 수 있었다. 모든 성도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며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마음과 육신의 여유를 가



질 수 있도록 친교의 장소로서 양질의 커피와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으나마 창출된 수익금은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도록 협력하고 있다. 국장으로서 물품구입에 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품의 원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계속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많은 책임이 막중하다보니 언감생심으로 주일날 결석은 꿈도 못꿀 일이 되어 예배에 꼭 참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하여도 외길 걷게 하시고 한 곳만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허락하신 날까지 쉽없이 달려갈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다짐해 본다.

■ 코람데오 · 캠핑이야기

‘야영의 즐거움, 협동심 · 친밀감은 보너스!’

코람데오의 6월달 활동은 캠핑이었다. 작년에 아쉽게도 참여를 하지 못했던 캠핑이었는데 올해는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었다. 캠핑을 가기 전에 캠핑장을 몇 달 전부터 찾아보고, 예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준비를 미리해야 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캠핑장 장소는 Malibu Creek State Park로 정해졌는데 교회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금요일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셋팅을 담당할 선발팀과 열심히 근무하고 퇴근해서 저녁 때 올 후발팀으로 나눠져서 캠핑장으로 향하기로 하였다. 선발팀으로 자원했던 나는 교회에 12시 10분쯤 도착했었던 것 같은데 윤이형(조운이 형제) 이 먼저 와서 교회 차량에 짐을 싣고 계셨다. 다른 선발대원들도 도착해서 짐을 같이 싣고 정리한 뒤 우리는 캠핑 장소로 향했다.

올해는 LA 날씨가 정말 다른 해와는 달리 이상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캠핑을 가는 날은 너무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함께 텐트를 치고, 테이블/간이 주방/캠핑차량 등을 설치하며 꽤 근사한 캠핑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꽤나 힘이 들었던 셋팅 과정에서 함께 어떻게 텐트를 칠지 고민하고, 힘을 합쳐서 협동하는 활동들이 코람데오와 함께 참여한 지체들 사이에 협동심과 친밀감을 길러주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캠핑장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고, 게임도 하며, 근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이킹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캠핑을 즐겼었다. 올해 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강에 물도 많았는데 평소 낚시를 즐겨하는 Matthew형이 낚시 장비를 챙겨와서 물고기도 잡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

캠핑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국장님들(양태섭 피택장로/양영 권사), 맛있는 디저트를 가지고 방문해주신 정현철 집사님 내외분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 덕분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물 받은 캠핑이었다. | 이성배 성도 |

I had a great time camping with Coram Deo. In the short time I spent with them, I felt very welcome. They graciously spoke to me in english even though they preferred korean. Not everything could be translated but I could understand their love and kindness, especially through their delicious cooking. The games we played were very fun and the hikes were beautiful. We climbed big rocks and even caught a few fish. Thank you for having me and showing me God's love. "

Matthew Lee

〈10주년 특별좌담 · 3면서 계속〉 김윤영: 운동회나 수련회 등 토요일에 행해졌던 행사들을 당일날 바로 신문에 올려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규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초창기에 인도할 때 나눴던 시간이 길어져도 말씀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세시간을 넘긴 적이 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항상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점을 느꼈 때였습니다.

질문 3) 앞으로의 다짐이나 소망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헬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순종하겠습니다.

나형철: 교회가 원하는 사역이 있으면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황영옥: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다리가 펴려도 목소리

만 안 떨리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김옥희: 제 생각을 앞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선한 사역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임용자: 미국교회처럼 머리가 희어져도 은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오래토록 섬기고 싶습니다.

김윤영: 익숙해진 일이라 자만하지 않고 늘 처음 시작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며 더 풍성한 스토리로 지면을 채워갈 때, 하나님이 소개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김규실: 항상 훈련을 시작할 때 이번이 마지막 훈련이라 생각하며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안에 예수께서 사신 흔적을 남기며 남은 인생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마음 속에 가두어 두었던 생각을 허심탄회 하게 나누어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귀한 시간을 마무리 했다.



빛 되신 예수님 '동심 속에 밝게 비춰주세요'

■ Kidz 잔치 VBS

2022년 6월 16-18

(금-주일) VBS 여름성경학교가 뽀리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해 주제는 'Shine His Light' 였는데요, 3일 동안 빛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말씀 어드벤처 스테이션, 아트 스테이션, 상상력 스테이션, 게임 스테이션, 스낵 스테이션 총 5개의 액티비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한번 더 마음에 새겼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더욱 풍성한 VBS 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언젠간 직면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빛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부의 모든 부서가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번 VBS를 준비하면서 한가지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세상보다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취미, 영역, 소속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지체롭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동팀에 봉사했던 Volunteer 학생 한명의 나눔 중에 그 학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놀이공원에 가거나 학교 행사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VBS 같은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고 share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VBS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여러가지 교육부 행

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발판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귀는 교우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주안교회에 왔을 때 소속감을 느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즐거운 액티비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게 들여다봤을 때 이러한 교회 행사를 통해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깨닫고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평범하지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란 것을 이번 VBS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새 아기 축복해요!

'목사님 설교말씀 최고의 태교'

6월 21일에 첫 아들 하준(Asher Kai Shaw) 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태교라고 할 건 없지만 임신 기간 동안 담임목사님 말씀 되새기며 묵상하는 걸 통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 들으면서 지냈더니 크게 걱정 근심 없이 임신 기간 잘 보낼 수 있었던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대로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신은지, Michael Shaw 성도 |



'아기 미소에 행복한 초보 엄마'

6월 7일 저희에게 첫 아들 하울(Noah Hyun) 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하는 육아이기에 아직 모든 것이 많이 서툴지만 매일 기도와 말씀을 붙들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초보 부모로써 달라진 생활에 조금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아기의 웃는 소리와 미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쌓여던 피로도 확 풀리며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생명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지어준 이름 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현덕, 현혜진 성도 |

■ Graduation Banquet

Celebrating ICCC's Graduates

On Sunday, June 25, ICCC's EM ministry held its annual graduation banquet.

This event celebrated recent high schoo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graduates. Some of these graduates may now be transitioning from ICY to EM. Others may already be in EM. All of them, however, are moving into a new phase in life.

During the banquet, EM members, along with celebrated graduates and ICY 11th graders, took part in fun games and social activities prepared by EM's leadership as well as a Mexican meal of tacos, chips and salsa,

and desserts from Vallarta Supermarkets.

Through this event, the EM ministry hopes to display a sense of fellowship and welcoming for high school graduates and even to new members of the ministry in general. This is a time of great transition. This time can be joyous but it could also be confusing and sometimes even heartbreaking. That is what the EM ministry is here for. It is our goal to create a community for all who knock at the door, from graduates to anyone looking for a community within church.

Chris Kim



■ Ian Jin Guest Speaker

Finding God's Purpose

On the weekend of June 4, 2023, ICCC EM was privileged to have a guest speaker in Pastor Ian Jin.

Coming from Philadelphia, Pastor Jin preached in both the ICY and EM services. His sermon, titled "Is your faith in God biblical?" gave a reflection of his own faith walk that led him to this moment. As a young man, Pastor Jin explained that he struggled with alcohol and smoking. He finally found God at age 19 while attending seminary school, initially something his parents wanted him to do over his own pursuits. But even after growing in his faith, Pastor Jin struggled, being in a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someone of the Catholic faith and eventually quitting ministry to go into business. But despite working hard and succeeding in his business pursuits, Pastor Jin realized his true conviction was the Word. Ashamed of his past life, he immediately sold his shares in business and returned to ministry where he continues to thrive today, serving as a college ministry pastor.

Through his journey, Pastor Jin says that he found more joy within the difficult times he faced. "Honesty and genuineness before God," he says. "We are very good at fooling ourselves before God. Remember that we don't live for man, for what others think about us. God thinks every second for us and God lives for us."

Chris Kim



Serving Lunch for the Congregation

■ Lunch Preparation

On Sunday, June 18, 2023, ICCC's EM ministry had the privilege of serving lunch to the congregation. On the menu this time was a cold dongchimi noodle soup with tteok-galbi. Preparations began the Sunday prior when EM members gathered to chop radish and other vegetables and begin the pickling process for the dongchimi. Preparations continued into Saturday, June 17, and

Sunday morning as EM members continued preparing the dongchimi and the tteok-galbi. By lunch-time, the food was served to the ICCC congregation and everything went accordingly as planned. A special thanks to the EM leadership and all the members who came out to help in preparing the food. Furthermore, a special thank you to the kitchen staff whose support and hard work is always valued and cherished.

Chris Kim

■ 새가족 소개/ 윤사론 집사

목사님 은혜의 말씀 주일마다 눈물이...

지금으로부터 6년쯤 버뱅크에서 포터렌치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좀더 안전하고 평온한 곳을 찾다가 결정한곳이 지금 사는 곳이다.

에이전트를 따라 이곳 저곳 우리에게 맞는 집을 구하러 그라나다힐스, 리시다, 시미벨리를 누비고 다니다 이곳 드라이브길에 주안예교회가 우뚝 서 있는데 웬지 이름도 좋고 교회건물에서 풍기는 깔끔 함과 넓은 파킹랏이 좋았다. “그래” 이 동네에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 했었다.

그러면서 1-2 년은 새 환경, 바람 많은 날씨와 적응하라 새로운 지리에 적응하라 바쁘게 지내다 코로나 펜데믹을 지내면서 남편의 치매와 피해 망상증이 펜데믹과 함께 시작되었다. 모든 일상을 혼자 힘으로 해나가고 남편의 병 구원을 하면서 교회를 나갈수가 없었다. 그러나 늘 허전하고 힘들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중... 자기 전에 먹는 치매약은 아침 늦게 까지 깊은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을 3 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1부 예배를 드리고 와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섰다.

이렇게 몇달을 주안예교회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주일예배 참석하며 특히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와, 성경을, 놀라움을 금치 못할 해박하게 풀어내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나를 감동케 하시고 은혜에 빠져서 눈물을 안흘리는 주일이 없었다.

김선자 권사님의 친절하고 배려 깊은 기다림 속에 그리고 사실은 찬양대가 그림고 성가를 부르고 싶었다. 성가대 안한 지가 20년이 흘렀다. 기도예 응답 하

시는 신실하신 주님! 드디어 기도 2주만에 1부 성가대가 창립 되었다. 나에게 놀랍고도 기적같은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유레카! 새신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 어찌 감히 성가대원이 되며 찬양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날 바로 새신자 등록을 맞쳤다.

살짝 살짝 남몰래 교회 한 귀퉁이에서 누가 아는 체라도 할까봐 불편해 하며 다니다 등록을 하니 땀뻑해지는 뭔가 가슴 깊이 생기가 돌고 일상 생활에서도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늘 매 순간의 결정은 전능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 하는 계기가 되었다.

5주 연습하고 올려드린 6/11(주일) 첫 성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목청도 만져 주시고 리듬도 타게 하시며 가사도 잊지 않게 해주셨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 찬양이었다고들 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의 형편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내가 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주안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열정, 전도사님들, 장로님 이하 권사님들, 모든 제직에 계신 분들의 얼굴 모습에서 풍기는 주님의 사랑이, 목사님 께서 갖고 계신 특별한 능력이... 나의 눈에 빛이 되어 볼 수 있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발길을 옮기게 하신다.



50여 대원 가족들 '행복한 만찬'

■ 임마누엘 성가대 즐거운 식탁

지난 6월 25일 주일 예배 후 글렌데일 소재 ‘Vegas’ 식당에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회식과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 평소 수고하는 성가대원들을 위해 성가대장 오 찬국 장로와 오 희경 권사가 준비한 이 모임에 50여 명의 대원과 배우자들이 참석하였고 최혁 담임목사가 오셔서 격려하여 주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들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유익한 교제를 하였다. 7월 달부터는 매주 찬양을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리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과 더 많은 은혜를 나누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은 매주 주일 아침에 더욱 많은 연습을 하고 또 현재와 같이 성가대에서 준비하는 음원을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



눈물을 참고...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와 권면

주안에 호프를 시작할 때 나이 먹어 늘어도 할 수 있는 일 일것 같아 자원을 했다. 집에 앉아 기도하고 편지는 쓸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매일 중보 기도가 뜰 때마다 죄지는 동기와 기도 대상의 영적 상태와 기도 제목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종일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만큼 재소자들에게 마음을 다 쏟고 있는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한국어가 가능한 형제에게 편지를 보냈고, “권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는 답신을 받아 마음의 부담이 되는중에 김승훈 집사님, 김정이 권사님과 박승근 집사님이 가시는 길에 오랜 지카운티 우리집에 오셔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

사막 가운데 세워진 회색빛 건물이었고, 면회시간 4시간을 한자리에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어렵게 찾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

김승훈 집사님 내외는 10년이 넘게 이사역을 하고 계셔서 수감자들과는 구면이었고, 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한번을 만났어도 십년지기 처럼 설레이며 반갑고, 정겹게 해후를 했다.

나는 처음이라 낯설고 복잡한 절차가 짜증도 나게 했지만 젊은 사람들 따라가며 속으로 기도하며 면회실 앞에 서니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눈물을 지겹

게 흘렸을 형제들한테 눈물을 보여 줄 수는 없어서 밝고 환하게 맞아 주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며 차례를 기다렸다.

김집사님과 박집사님은 자판기에서 부지런히 돈을 넣고 음식을 골라 사고 두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한 형제는 한국 어권, 한사람은 영어권인데 각자의 테이블을 떠나서도 안되고 합석을 해서도 안된다.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권했다.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질려버린 매일의 음식을 안 먹고 나왔을 것 같아 이것 저것 권해 드렸다. 매콤한 음식이 그리운지 밖에서는 흔해 빠진 매운 소스를 찾는데 자판기에도 없었다.

“저는 워낙 욕할줄도 모르고 싸움도 안해 봤었어요.”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얼굴에는 선한 모습이 그대로 들어나 있었다. “5초를 못참아 50년을 이렇게 삽니다.”

타주에서 어머니와 세탁소하며 벌은 돈을 갖고 엘에이에 사업체를 샀는데 그 거래에 거짓이 있어서 살인을 하게 된 형제의 사정을 나는 기도 통신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지난 팬데믹 때 찾아오신 어머니가 우리창 밖에서 아들에게 “모범수 되어서 밖에 나와 살아라!” 당부하신 말씀이 유언이 되었다. 어머니도 구원 받으셨고, 형제님도 구원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다시 만날 날을 기쁘게 기다리자고 권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잔치를 여신다는 하나님의 마

음을 기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셔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 20점 벌점에 한점도 벌점이 없는 신실한 형제였다.

나는 곁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아주 애똥 얼굴의 청년으로 머리로 세련되게 만졌고 온 몸의 문신도 현란했지만 예쁘다고 했더니 부처가 앉은 자리의 꽃이라.

“너도 언젠가는 아빠가 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너는 롤모델 되는 아빠를 못 보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었지? 배우지 못한 네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니? 이 성경에 그 답이 다 있단다.”

맑은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니 성경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곁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안찾아봐서 모를꺼야. 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을꺼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 봐”

헤어지는 시간에 또 오세요 소리를 못하고 편지 드릴게요 하는 형제를 안아주고 돌아섰다. 나는 주안에 호프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드린다.

7일/24시간을 열어 놓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헌신자들이다. 같이 아프고, 같이 외로운 이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 이예스터 기자 |

■ Baby Shower (OC 3목장)

전홍섭·강정임 집사님 '둘째 선물 축복'

OC채플 3목장에서는 7월 중순 둘째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홍섭, 강정임 집사님 가정을 위해 목자 되시는 송태일 집사님, 김지선 피택권사님과 목원들이 함께 주일 예배후에 베이비 샤워를 계획했다.

정작 주인공 가정의 강정임 집사님은 만삭임에도 주안에말씀을 참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소감문을 쓰다가 배물침이 있어서, 주일 교회에는 부득히 오지 못해서 함께 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예배 후에 집으로 찾아가 전달해 주었다고 한다. 특별히 먼 거리에서 주안에교회 밸리채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30, 40대가 모여있는 이 가정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주안에 교회에 귀하고 예쁜 목장이다. | 류명수 기자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 체육국(축구부) 소식



친교와 체력단련 넘어 '스포츠 사역' 으로

저희 축구팀은 주안예교회 네 가지 비전 중 나눔과 섬김의 비전을 기반으로 성도들의 체력 단련과 친교 및 크리스천 축구인의 저변확대를(선교/전도) 위한 지역사회 선교를 목적으로 지난 3월에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역 하시는 분들과 체육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현재 10대 중학생 부터 60대 장년까지 전체 47명의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축구를 통하여 땀흘리며 건강한 교제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주일 축구 경기에는 부에나파에 위치한 감사한인 교회와의 첫

10대부터 60대까지 화기애애
타교회와 친선경기 '멋진 승부'

번째 친선 경기를 하였습니다. 친선 경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양팀 모두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축구 경기 후 감사한인 교회 축구팀 관계자분들께서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의 열정과 단합된 힘을 느끼고 배우고 간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너무나 자랑 스러웠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선교와 많은 사역을 위해서는 체력은 필수 조건 입니

다. 주안예교회에는 다양한 스포츠 사역이 있습니다. 축구가 아니더라도 등산, 골프, 배드민턴, 탁구팀에 들어가서 건강과 즐겁고 감사한 교제를 하시길 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0년 이후의 주안예교회의 방향을 열정적인 선교로 지난주에 선포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10년 후에는 주안예교회 방향에 맞추어 스포츠 사역과 스포츠 선교도 발전하길 기도 합니다.

주안예교회의 10주년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드리고, 10년을 열심히 달려 오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정현철 집사(축구팀 총무) |

벤추라 해변 RV로의 초대

이해령 권사님은 이방길 장로님께서 남겨 두 신 집과 RV를 지키면서 왜 이것을 남겨 두고 가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남편을 통해 주님께서서는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1년을 보냈다.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주안에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구상한 것이 장로님과 RV를 구입하고 제일 처음 찾았던 Faria County Park 해변가에 RV를 파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초대해서 교제하며 장로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멜로디 속에, 수천년을 변함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각양각색의 조각돌들을 쫓아보며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게해서 지난 10년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있다.

OC 채플도 차레가 되어서 차 한대로 다 함께 해변가를 찾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님이 친구 여서 두사람을 짝지워 주고 신혼



여행 가라고 주신 돈을 저축해두고 요세미티로 신혼여행을 갔었다. 그 요세미티를 RV를 사서 장남과 셋이 휴가를 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즐기시고, 환한 미소로 식구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시고 천국으로 가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마지막이였는지.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장로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늘과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 보았다.

| 이예스터 기자 |